

Anthony J. Tomasino 박사, 십계명 , 세션 7, 살인하지 마십시오

앤서니 J. 토마시노 박사님의 십계명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7차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제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제 우리 대부분은 적어도 H.G. 웰스라는 이름은 익숙할 것이고, 그의 작품 중 몇몇은 익숙할지도 모릅니다. 그의 이야기 중 일부는 매우 인기 있는 영화가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세계 대전", "타임머신", "다가올 것들", "우주 전쟁"은 물론 여러 번 영화로 리메이크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H.G. 웰스의 가장 섬뜩한 작품 중 하나는 그의 단편 소설 중 하나인 "모로 박사의 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의 일부를 말씀드리자면, 한 과학자가 열대 섬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꽤 야심 찬 실험을 하고 있죠. 동물을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창조물들은 거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똑바로 걷고, 대부분 사람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 각자 안에는 짐승의 기운이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이 인간 동물들은 모두 섬의 한 구역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래 염소였던 입법자가 다스리는데, 이제는 입법자가 되었습니다. 마치 모세와 같은 존재죠.

하지만 지도자는 이 인간-동물들에게 모로 박사를 통해 전해진 신의 뜻을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인간-동물에게 가장 중요한 법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동물이 그 법을 어기면, 다른 모든 인간-동물이 그들에게 등을 돌려 차례로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한 동물이 원래의 짐승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면, 불행히도 자주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들 역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기묘한 죽음의 그물이 생긴 거죠. 그들은 살생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과 관련된 다른 법칙을 어긴 사람은 누구든 즉시 제거했습니다.

웰스의 이야기에서 가장 불안한 점은 웰스가 단순히 동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단지

상상력 넘치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려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는 인간 본성에 대한 논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웰스가 이 이야기에서 한 말은, 생각해 보면 좀 묘한데, 웰스는 인본주의자로 유명했거든요. 그는 기독교인도 아니었고, 종교적인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는 인본주의자였죠.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그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똑바로 걷고, 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언어를 사용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사용한다고 해도,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것은 바로 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안에 도사리고 있는 짐승 같은 본능을 억제하는 규칙들이죠. 핑계와 기회만 주어진다면, 우리는 모두 동물에게로 돌아가 사냥하고 우리 자신의 것을 죽일 것입니다.

웰스는 법이 우리를 통제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법이 없다면 우리는 짐승에 불과합니다. 이는 인간 조건에 대한 일종의 우울한 평가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증거는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본 적이 있다면, 사람들이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는 데 있어 상당히 비참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이 단순히 두 발로 걸어 다니며 그 이상의 존재인 척하는 동물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 이상의 존재이며, 우리 안에 신성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 말라 "는 계명이 주어진 이유입니다. 자, 살인에 대한 규정의 기원에 대해서는, 음, 역사적으로 인간 사회와 문명의 시초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집단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누구를 죽일 수 있고 누구를 죽일 수 없는지 결정 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계의 가장 원시적인 사회들을 살펴보면, 누가 죽임을 당하고 누가 누구를 죽일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원전 2050년경 수메르 우르남무 법전, 우르남무 법전의 첫 번째 법은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쉬운 법이죠.

그런데, 깜짝 퀴즈, 명제론적인가요, 아니면 결의론적인가요? 당연히 결의론적이죠, 그렇죠? 기원전 1750년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살인에 대한 구체적인 법은 없지만, 다른 여러 법들에는 살인은 사형에 해당하며, 살인자는 사형에 처해진다는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1450년에서 1250년 사이의 중세 아시리아 법전에는 살인에 대한 형벌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살인자는 사형에 처해진다는 가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 사회, 고대 법률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흐름은 살인자는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인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상황, 예를 들어 누군가 마지막 도넛을 가져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의 법전에는 살인을 정당화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특정한 가정과 신중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중 하나는 전쟁입니다. 누군가와 전투를 벌이고 있다면, 누군가를 죽이도록 요구받을 뿐만 아니라, 죽이도록 부추깁니다. 사법 당국에 의해 처형이 집행됩니다.

이러한 경우, 때로는 책임을 피해 당사자에게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여기서는 혈연 관계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형제를 죽였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죽여 형제의 원수를 갚을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살인이 정당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살인 외에도 많은 범죄가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십계명 중 일부에서 이미 이를 확인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끊임없이 비난하거나, 설령 부모를 때리더라도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많은 고대 법전에서 재산 범죄는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음, 네, 도둑질은 누구에게서 훔쳤는지에 따라 어느 정도 결정되었습니다. 사원에서 도둑질하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만약 가난한 사람, 즉 하층민이 상류층 사람의 물건을 훔쳤다면, 아마도 한 손이라도 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재산 범죄는 반드시 사형으로 간주되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아내를 유혹한 경우처럼 개인 상해에 대한 복수는 여러 법률 조항에 따라 아내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사형에 처하도록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법전은 이 부분에서 일종의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내를 노예로 팔아넘기고 그녀와 간통한 남자를 죽이라고 명령할 수 없다면 말입니다. 아내를 원하면, 아내가 사형에 처해지면 그 사람도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아내의 코가 잘렸다면, 그 남자의 코도 잘렸을 겁니다. 간통죄에 관해서는 상당히 유연한 법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내가 이웃과 간통을 저지르면 둘 다 죽는다는 말로 시작됩니다.

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저는 이것이 성경의 율법에도 때때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 성경은 절대적인 원칙을 명시 하지만, 예외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피의 복수는 이미 언급했으니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살인이 정당 하다고 여겨지 는 사례들이 많았죠 .

그러니 ,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모든 살인을 전면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이웃을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것을 삼가야 했습니다. 무작정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가 있었죠.

그리고 그 가정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었고, 논쟁할 필요도 없었으며,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질서가 잘 잡힌 사회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고대 근동 문화의 일부였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종류의 법과 가치가 사회의 기반이었던 그 세계의 일부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성경의 율법 사이에 어느 정도 유사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들은 이웃 나라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매우 중요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고대 근동의 이웃 나라들과는 다른 종류의 새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 이 부분을 살펴보죠. “살인하지 말라”는 현대 번역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동사는 “라차흐” 입니다 . “라차흐”는 히브리어에서 살인을 뜻하는 일반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모든 히브리 학생들이 패러다임을 하나하나 배우면서 배우는 살인을 뜻하는 일반적인 단어는 ‘카탈’인데, 패러다임을 되짚어 보면서 암송할 때는 이 단어가 마치 병적으로 들리는 듯합니다. ‘카탈, 등등, 등등’. 그런데 문득, ‘아, 잠깐, 이 모든 사람들이 살인을 저지르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죽이다”를 뜻하는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하지만 “라차흐”는 다른 단어입니다. “라차흐”는 몇 가지 다른 함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 라차흐(ratzach)는 사람을 죽일 때만 쓰입니다. 그러니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채식주의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광고판 좀 치워주세요.

이는 개인적인 살인이나 과실치사를 지칭합니다.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데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투에서 누군가를 죽이는 것은 '때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공식적인 처형 행위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살인 행위나 가끔 과실치사(manslaughter)에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몇 마디를 좀 더 살펴보면, 아시다시피, 'lo ratzach'는 '살인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이에 대해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는 이 계명들이 모세 오경 과 그 이후의 성경 책들에서 나중에 완성되었음을 봅니다. 여기 출애굽기 21장에서 우리는 같은 종류의 율법에 대한 결의론적 해석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때려 치명상을 입히는 자는 누구든 사형에 처해야 한다. 알겠나. 으음, 우르나무 같은, 그렇지? 하지만 고의가 아니라 신께서 허락하신다면, 내가 정해 줄 곳으로 도망가야 한다.

이것은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될 도피성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계락을 꾸며 고의로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은 내 제단에서 끌어내어 처형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고의적인 죽음과 사고사를 구분하는 법입니다.

사고사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이 허락하셨으니까요. 와우. 신학적으로 이걸 다루기 힘든 문제네요.

윤리학자들 과 신학자들이 논의하도록 남겨두겠습니다 . 레위기, 네 이웃의 생명을 위협에 빠뜨리는 일은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다.

네 마음으로 동족을 미워하지 말고, 네 이웃을 꾸짖어 그의 죄에 동참하지 않도록 하여라. 네 동족 중 누구에게도 원한을 품거나 원한을 품지 말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나는 주님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이런 종류의 일에 대해 더 긍정적인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복수를 추구하거나 원한을 품는 대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십시오.

민수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쇠붙이로 사람을 때려 죽이면 그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십계명에도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돌을 들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쳐서 사람을 치면 그 사람도 살인자입니다.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혹은 나무로 된 물건을 들고 있다가 누군가를 때려 치명상을 입히면, 그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그 살인자는 사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당신이 아주 무거운 깃털을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누군가를 때려 죽였다면, 당신은 살인자이고 사형에 처해질 것입니다.

피의 보복자가 살인자를 죽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당신의 형제를 죽였다면, 그는 피 흘린 죄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신은 피의 보복자가 될 책임이 있습니다. 보복자가 살인자를 만나면, 그 살인자를 죽일 것입니다.

누구든지 악의나 선의로 다른 사람을 밀치거나 고의로 무언가를 던져 죽게 하거나, 적대감으로 주먹으로 다른 사람을 때려 죽게 하면 그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는 살인자입니다. 피의 보복자가 살인자를 만나면 그 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몇 가지 있는데 ,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흥미로운 점은 계급에 따른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다른 고대 법전에서는 누구를 죽였는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노예가 다른 노예를 죽이면, 재산 손실 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귀족이 농민을 죽이면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단순히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면, 여기에 제시된 법에 따라 모든 생명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흥미로운 점 중 하나죠.

여기서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공동체가 심판을 집행하도록 부름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심판은 피의 복수자에게 맡겨집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는 이전에도 존재했던 상황이며, 법이 앞으로 일어날 행동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도피성 이라는 개념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 이미 이야기하고 언급했듯이, 누군가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다면, 구약 성경에 따르면, 만약 누군가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판단되면, 그들은 자신이 있을 곳으로 피신할 수 있었고, 피의 보복자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할 책임감을 느꼈을 겁니다 .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용서가 많지 않았습니다. "아 , 그냥 사고였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

아시다시피, 우리는 죽은 친척을 위해 복수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는 아주 길고 지속적인 폭력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었고, 제가 실수로 조를 죽였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의 형이 와서 저를 죽였죠.

그러자 형은 내 복수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형 중 한 명을 죽이고, 그 후로도 계속 반복됩니다 .

그리고 불화가 벌어지죠. 그 피의 불화는 대가족이 개입될 때까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햇필드 가문과 맥코이 가문이 서로를 몰살시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 모든 것을 미리 짚 잘라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첫째 , 과실치사는 사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다면, 그 사람은 살도록 허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도시로 갈 수 있도록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마련하여 보호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피의 복수를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살인으로 간주할까요? 당연히 적법한 절차나 사회적 승인 없이 고의로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악의와 선견지명은 이 정의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살인은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를 죽이려고 생각하는 거죠. 죽이려고 계획하는 거고, 죽이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싸우다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또한 살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악의와 계획의 개념을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는 현대 법학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악의와 선견지명이 개입된 1급 살인과, 순간적인 충동에 의한 2급 살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다른 하나만큼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물론 피해자에게는 마찬가지로 심각한 문제지만, 법정에서는 그다지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웃을 죽일 수 없는 걸까요? 그들이 그럴 만한 짓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고대 근동 사회의 문헌과는 달리, 성서는 실제로 형제자매를 죽일 수 없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우르남무 법전에서 이는 하나의 가정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마세요.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누군가를, 적어도 특정인을 죽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세 아시리아 법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저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유지하는 게 전부일까요? 자,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정의로운 사회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고려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살인하지 말아야 하는 다른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 이유는 십계명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은 무엇이든.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대부분의 성경 번역본, 어쩌면 모든 성경 번역본에서도, 제가 여러 번역본을 살펴봤기 때문에, 이 단어는 "누구든지"로 번역됩니다.

이 단어는 '아셰르' 인데, 관계대명사입니다. 히브리어로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고, '사람'을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문맥상, 그가 하는 말은 노아와 모든 인류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잡아서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누구든지 그 피를 사람이 흘릴 것이다. 이것은 짐승이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죄송합니다, 통역자 여러분. 숙제 좀 하세요. 그런데 왜 동물은 사람을 죽일 수 없는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사회에서 특별한 위치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기에 살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형제자매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섯 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의 이면에 있는 원칙은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정말,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점을 알고 계셨고, 예수님과 제가 같은 생각을 한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똑똑한 분이셨습니다.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고, 살인하는 자는 누구든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누구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형제에게 "너는 쓸모없는 놈이야"라고 말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어리석은 놈"이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 불에 떨어질 만큼 충분한 죄를 지었다.

좋아요, 저는 당연히 지옥에 갈 자격이 있습니다. 제 삶에서 많은 사람을 어리석다고 불렀으니까요. 여기서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산상수훈 전체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문학적 기법을 사용하셨는데, 이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다음 계명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문학적 기법은 우리가 과장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요점을 강조하기 위해 과장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영리한 분이셨고,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법을 아셨습니다.

당연히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했다는 이유로 법정에 끌려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했다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고백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바보라고 불렀다고 지옥에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는 유일한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네, 이건 과장된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않는 이유나 근거가 존중의 이유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봅시다.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인격을 원망하거나 폄하하지 마세요.

누군가를 쓸모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아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고, 그 점을 존중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라카', 즉 쓸모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를 바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사실 우리는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누군가 한 일은 바보 같다고 할 수 있고, 예수님도 몇 번 그런 적이 있잖아요.

하지만 누군가를 바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웃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살해하지 않는 것은 이 원칙의 구체적인 예입니다.

원칙은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확장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한번 과장법을 사용하여 요점을 강조합니다.

내 눈 뽑아? 진심이야? 에휴, 진심이야. 하지만 말 그대로 아니야. 이건 과장이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경고하시는 것은 "이웃에게 화가 났습니까?"입니다. 화가 났다는 것을 알면 손뼉을 치십시오.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분명히 다른 방법보다 더 나은 분노 다스리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심리학적인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하지만 좋은 분노, 중립적인 분노, 그리고 나쁜 분노는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화를 내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에서도 말씀하시죠. 화를 내되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노가 항상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분노가 매우 좋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선한 분노는 종종 타인을 대신하여 느끼는 분노이며, 이는 정의를 실현하는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자극합니다. 아시다시피, 선한 분노는 시민권 운동과 같은 일들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환전상들을 쫓아내셨을 때, 분노하신 것은 자신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예가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모습은 대개 누군가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학대하거나, 짐을 지울 때 나타납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 자신도 공격을 받았을 때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 그러므로 선한 분노는 동기를 부여하는 강력한 힘이고, 집중될 수 있으며, 사용될 수 있고, 세상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중립적 인 분노, 중립적인 분노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분노는 우리 반응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아시다시피, 교통 체증에 갇히면 누군가 끼어 들죠 . 그러면 자연스럽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하지만 저는 그런 반응에 미덕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화를 얼마나 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잖아요, 저는 항상 너무 화가 나 있거든요. 그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아뇨, 정말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저는 고혈압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립적인 분노는 그런 일상적인 좌절감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어요.

꼭 좋은 건 아니지만, 꼭 나쁜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나쁜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노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쁜 분노는 어떨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나쁜 분노란 상대방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화가 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죠? 그리고 저는 이것이 항상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피부색이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화가 나거나, 부유하다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화가 나거나, 가난하다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화가 나거나, 혹은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다른 이유나 그들의 본질에 있는 어떤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화가 난다면, 그것은 나쁜 분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증오로 번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증오는 항상 성경에서 정죄됩니다. 레위기에서 읽을 수 있듯이, 마음으로 이웃을 미워하지 말고,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바보라고 부르는 데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말했듯이 우리는 그들의 행동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번은 네 살짜리 아이를 차 뒷좌석에 태우고 운전하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이 가끔 제 설교를 듣기도 했는데, 누군가 제 말을 가로채서 "이 멍청이!" 라고 말했기 때문에 무서웠습니다. 제 네 살짜리 아이는 "아빠, 그들이 한 일이 좀 멍청한 것이었다는 뜻이 아니에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 정말, 제 말은,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행동으로 사람들을 몰아붙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바보라고 몰아붙여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 해서요. 그러면 우리 중 누가 그런 기준에서 결백할 수 있겠습니까? 라카, 쓸모없는 놈, 맞죠? 일부 번역에서는 실제로 이 아람어 단어인 라카를 사용합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그리스어가 아니라 아람어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형제에게 “라카” 라고 말할 때 , 이 아람어 단어를 삽입하는 사람은 탈무드에서 이 단어를 꽤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 이 단어는 널리 사용되며,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모옥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 너는 다른 사람을 무가치하다고 판단할 권리가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

여기서 저는 C.S. 루이스의 말이 떠오릅니다. 그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잠재적인 영적 거인으로 대하라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누군가 안에 얼마나 많은 잠재력이 깃들어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설령 그들이 지금 당장은 가장 부랑자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왜곡되어 있더라도, 신적인 형상은 모든 사람 안에 남아 있으며, 그 신적인 형상은 우리의 존경을 받을 만합니다.

그들을 죽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최대의 일은,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고, 그 형상을 소중히 여기며, 모든 사람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돕는 것입니다.